

特輯

世界石油情勢를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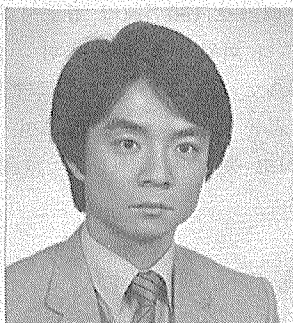
1985年 國際石油市場 展望

70년대에는天井不知로 치솟기만 하여 世界經濟를 두차례나 뒤흔들었던 國際石油價格이 80년대 들어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 83년 3월에는 콧대높던 OPEC(石油輸出國機構)가 基準油價를 배럴당 5달러나 인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油價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現物油價는 지난 5월 이란·이라크戰爭이 페르시아灣 통과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습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이 지역으로 부터의 石油 공급이 심각한 위협에 봉착되었을 때, 잠시 올랐을 뿐, 그 이후 다시 하락하였으며, 이제는 이·이戰의 격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 등에 微動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특히 지난 10월 중순 노르웨이를 始發로 英國, 나이지리아에 까지 파급된 油價인하사태로 크게 떨어진 現物油價는 OPEC의 減産조치가 실시되고 있고, 계절적으로 石油需要가 늘어나는 時期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現物油價의 하락세는 OPEC에 대한 公示價인하압력을 어느때보다 加重시키고 있다.

供給過剩이 油價下落의 근본원인

이처럼 油價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世界石油市場의 공급과잉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世界石油수요는 80년대 들어서 매년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이는 지난 70년대에 두 차례의 石油波動을 경험한 세계 각국이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개발을 적극 추진한 데다 세계적인 景氣沈滯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3년 초의 油價인하와 83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에 힘입어 世界石油수요는 금년에야 비로소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國際에너지機構(IEA)의 발표에 따르면, 80년 이후 매년 4~5%씩 감소되어 온 世界石油수요가 83년에는 2%로 감소폭이 줄어들어 뒤 금년에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증가가 石油供給過剩을 해소시키기에는 미약하다. 하루 2,800만배럴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OPEC의 현 생산량(9월 평균)이 1,659만 배럴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40%의 유휴설비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OP



李紀勳

〈産業研究院(KIET)
動向分析室 研究員〉

EC이 생산을 自制하고 있음에 비해 非OPEC產油國들은 새로운 油田의 발견이 늘어난데다 外換부족에 직면, 생산을 늘림으로써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 產油國이면서 石油수출로 硬貨를 획득하는 소련, 外債危機에 시달리는 멕시코, 北海油田개발에 성공한 英國과 노르웨이 등 非OPEC產油國의 금년도 石油생산은 5년전에 비해 20%나 증가되었으며, 지난 해보다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계절적인 需要증가의 부진도 油價下落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北半球 冬節期인 4/4분기 부터는 暖房수요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석유소비가 夏節期보다 하루 400만배럴 이상 증가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요증가가 미미한데다 그나마 企業이 보유한 在庫油를 방출하여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여름에 冷房器具 보급확대로 油類소비가 늘어난 반면 겨울에는 斷熱材 등의 발달로 熱效率이 높아짐으로써 석유 소비가 줄어들어, 여름과 겨울간의 소비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企業의 在庫油 管理技法도 변하고 있다. 통상 2/4, 3/4분기에 하루 150~200만 배럴의 石油를 비축하였다가 4/4 및 1/4분기에 방출하여 왔는데, 近年에는 계절적인 수요변화폭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在庫管理費用이 증대되었으며, 소비지에 가까운 油田(알래스카, 멕시코, 北海 등)이 늘어났고, 파이프라인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在庫보유를 기피하고 있다.

輕質油 供給過剩이 특히 심각

현재의 가격체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매겨진 輕質油의 경우 需要不振으로 공급과잉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 現物油價가 急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이로 인한 것이다. 즉 노르웨이, 英國, 나이지리아 등이 公示價를 인하한 것도 自國의 Ekofisk, Brent, Bonny light 등 輕質油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또 사우디 아라비아가 페트로민을 통한 石油混合 판매비율을 종전의 輕, 中, 重質油 각각 60%, 20%, 20%에서 40%, 25%, 35%로 변경한 것도 인

기가 없는 輕質油비중을 줄여 배럴당 53센트의 公示價인하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自國產 石油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였다.

輕質油 수요가 부진하게 된 것은 그동안 세계의 石油정제기술이 크게 高度化되었으며, 重質油分解施設도 확충됨으로써 각국은 輕質油보다 값이싼 重質油를 選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Arab light 公示價는 Arab Heavy 보다 배럴당 3달러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나, 現物時勢로는 1.5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OPEC, 公示價 防禦위해 안간힘

OPEC는 이러한 정세하에서 基準油價를 배럴당 29달러로 하는 公示價體系를 고수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7월의 정기총회에서는 순방외교라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會員國들에게는 생산한도를 초과 생산하거나, 갖가지 방법으로 公示價 이하로 할인판매하는 등 OPEC 協定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非OPEC 產油國들은 생산을 自制하며 OPEC과 공동보조를 취하여 油價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각국에 파견하였다.

또 지난 10월 말의 총회에서 OPEC은 公示價를 고수하되 생산한도를 종전의 하루 1,750만 배럴에서 1,600만 배럴로 150만배럴 감소시켰다. OPEC은 산유량을 각 회원국에 할당한 뒤 減產措置를 신속히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OPEC의 단합된 힘과 油價固守意志를 나타내려고 애썼으며, 한편으로는 이집트, 멕시코 등 非會員國들도 減產隊列에 동참시켰다.

現物油價, 여전히 바닥권

OPEC의 減產決定을 전후하여 소폭 회복되는 듯 하던 現物油價가 여전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① OPEC의 減產幅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나타내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 ② 나이지리아의 價格割引을 묵인하는 등 OPEC의 카르텔機能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 ③ 油種間 價格隔差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OPEC總회가 끝나고 나서도 會員國들의 油價割引販売은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減産措置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美國의 주요 석유회사들은 11월 들어 美國의 代表油種이라 할 수 있는 WTI의 가격을 배럴당 1~2 달러 인하함으로써 現物油價의 하락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美國의 CITGO 社 등 일부 石油會社는 重質油價를 배럴당 1 달러 인하함으로써 油價인하가 重質油에까지 파급될 조짐을 보였다.

또 노르웨이, 英國 등은 公示價 인하에도 불구하고 現物油價가 인하된 公示價를 밀돌아 판매가 부진하자 다시 公示價를 인하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소련이나 이집트 등도 油價를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5년에 배럴당 1~2 달러 내릴 듯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OPEC이 公示價를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石油전문가들 사이에는 油價가 내년에 하락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내년에 油價가 인하된다면 그 시기로는 北半球의 冬節期가 끝나 石油非需期로 접어드는 3월 경을 잡고 있으며, 인하폭은 배럴당 1~2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내년에 油價가 하락될 것으로 보는 또 다른 근거로 世界石油需要의 증가세가 鈍化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世界石油수요는 先進工業國들의 예상보다 빠른 成長勢에 힘입어 4년만에 처음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① 石油代金の 國際決濟通貨인 달러貨의 강세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② 83년의 名目油價 인하와 그 동안의 物價상승률을 감안할 때 지난 80년에 비해 實質油價가 약 35%나 하락된 바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 石油수요회복을 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무엇보다도 내년에 주요 先進國들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世界石油수요의 증가세는 금년의 27%에서 1%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世界石油수요는 금년의 하루 4,560만 배럴에서 내년에 하루 4,600~4,650만 배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유럽국가의 수요증가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景氣회복이 늦게 시작된데다 달러貨 강세로 石油輸入負擔은 오히려 가중되어 금년에 석유수요가 1% 정도의 미약한 증가에 그쳤다. 내년에 유럽의 성장세는 오히려 금년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달러貨 價値도 하락되면 石油수요는 금년보다 2.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北美나 기타 OECD 국가들의 내년도 石油소비는 금년보다 1% 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OECD 전체로는 1.5% 정도의 미약한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또 開發國들의 石油소비는 금년의 1% 미만에서 내년에 2.5~3%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OPEC, 公示價 固守할 지도

OPEC가 현재의 公示價體系를 그대로 固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OPEC의 公示價防禦노력이다. OPEC는 그동안 추가로 생산한도를 줄이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油價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여 왔다. OPEC가 公示價를 固守하겠다는 배경으로는 ① 公示價를 인하하더라도 소비국들이 引下幅만큼 稅金으로 흡수함으로써 실제로 石油수요가 증대될 것 같지 않고, ② 수요가 늘더라도 非OPEC 產油國들의 증산으로 OPEC에 대한 수요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③ 公示價引下는 OPEC의 結束力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둘째, 미약하나마 世界石油수요는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내년도에 先進國들의 成長勢 둔화는 소폭에 그칠 것이어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의 야마니 石油相은 금년 말부터 世界石油需要가 늘어나면 OPEC가 오히려 생산한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셋째, 西方 石油會社의 재고가 계속 방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OPEC의 減産으로 西方 石油會社들이 하루 300~400만 배럴씩 在庫油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년 1월 1일에 備蓄油는 尙後 65日 消費分에 불과하여 79년

이란革命 이후 최저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리소시즈社(DRI : Data Resources Inc.) 나 와튼計量經濟研究所(WEFA : Wh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es) 같은 展望機關에서는 내년에도 油價가 금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OPEC가 公示價를 고수하더라도 油種間 價格隔差는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OPEC은 지난 10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빠른 금년 중에 價格隔差가 조정될 수도 있다.

油種間的 價格隔差 조정 방법으로는 ① 輕質油 公示價의 인하 ② 重質油價의 인상 ③ ①, ②의 방법을 병행 ④ 基準油를 重質油로 변경 ⑤ 公示價를 現物市場 時勢와 연동시키는 것 등 여러가지 案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사우디, 쿠웨이트 등 OPEC의 주축세력이 重質油 생산비중이 높아서 輕質油의 가격인하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油價, 배럴당 20~25달러說도

일부 石油전문가들은 내년에 油價가 폭락하여 배럴당 20~25달러線까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表-1〉 豫測機關別 油價展望

(單位: \$/B)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WEFA	29.90	29.17	29.23	29.22	32.16	34.85
DRI	29.56	28.62	28.62	28.65	30.64	—
OECD	29.85	28.70	28.70	—	—	—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84.

DRI, European Review, Nov. 1984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ly 1984.

〈表-2〉 自由世界 石油需給 推移 및 展望¹⁾

(單位: 萬B/D)

	1983 (OECD)	1984			1985		
		OECD	WEFA ²⁾	IEA	OECD	WEFA ²⁾	IEA
消 費							
OECD	3,280	3,390	3,044	3,490	3,450	3,105	3,530
OPEC	300	310	344	—	310	367	—
非產油開途國	760	760	786	—	770	803	—
其 他 ³⁾	-50	20	0	—	20	0	—
計	4,290	4,480	4,174	4,560	4,550	4,274	4,630
供 給							
OECD	1,590	1,630	1,427	1,640	1,630	1,417	1,660
OPEC	1,890	1,960	1,844	—	2,050	1,990	—
對 共 產 國	160	160	214	170	160	200	170
純 輸 入	—	—	—	—	—	667	—
其 他 ³⁾	690	730	689	—	730	—	—
計	4,330	4,480	4,174	—	4,570	4,274	—

註: 1) 液化 天然가스(NGL) 포함.

2) 液化 天然가스(NGL) 제외.

3) 在庫增減 포함.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84.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ly 1984.

IEA, Oil Market Report, Nov. 1984.

美國의 Hodel 에너지省 장관은 현재 油價가 OPEC에 의해 인위적으로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조만간 하락할 것이며 현 수급상황으로 봐서 배럴당 25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밖에 油價暴落說의 근거로 지적되고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OPEC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油價결정기능이 OPEC에서 점차 市場機構 쪽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會員國들이 협정을 무시하고 公示價割引販売를 경쟁적으로 자행할 경우 內紛으로 OPEC이 와해될 수도 있다.

둘째, 이란·이라크戰의 終息이다. 이·이戰이 어느 한쪽이 패망하지 않고 休戰이 될 경우, 兩國으로부터의 石油供給이 크게 늘어 油價가 急落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사우디를 비롯한 中東產油國들의 石油下流部門 진출이다. 금년에 사우디의 얀부精油工場이 가동에 들어갔으며, 내년 초에 다시 쥬베일에 25만배럴 규모의 精油工場이 완공되는 등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등 中東產油國들의 石油精製施設 확충은 공급과잉이 누적된 石油類製品市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原油價格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油價, 86년까지 下向 安定勢 지속

장기적으로 볼 때 國際石油價格은 86년까지 下

向 安定勢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5년에 世界 石油수요의 증가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86년에는 세계경제의 成長勢가 85년보다 더욱 둔화되어 石油수요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非OPEC產油國들의 공급증대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추세로 世界石油市場의 공급과잉이 88년까지 지속될 것이어서 世界石油市場은 그때까지 Buyer's market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油價는 향후 2~3년간 下向 安定勢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늦어도 80년대말이나 90년대 초에는 世界石油수요가 증가되어 공급과잉현상이 점차 해소될 것이며, 非OPEC 產油國으로부터의 石油공급도 감소되면, OPEC이 다시 世界石油市場의 主導權을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油價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油價에 관한 전망이 그대로 的中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石油에 관해 가장 틀림없이 예언할 수 있는 말은 不確實하다는 말 뿐이다」. 라는 文句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지금까지 油價는 經濟外的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지금의 世界石油市場에도 이란·이라크戰爭 등과 같은 술한 不確實性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石油의 공급이 안정될 것이며 油價도 弱勢를 보일 것으로 낙관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

청탁풍조 배격하여

명랑사회 이룩하자